

추석 민생부터 미래산업까지 ‘종합무진’

도, 이번주 도정 일정 발표... 1조원대 LS L&F 준공식·그린수소 협약 등 미래 투자·민생 돌봄 집중

전북특별자치도가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유치와 도민 화합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며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고 의미 있는 한 주를 보낼 예정이다.

김철태 전북특별자치도 대변인은 지난 26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의 주요 도정 일정을 소상히 밝히며, “도민을 위한 열린 도정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과다.

29일에는 (주)아레스 인도 에너지 기업과 그린수소 사업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식이 도지사실에서 열려 미래 에너지 산업에서의 전북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

같은 날, 익산에서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착공식이 열려 농생명 산업의 미래를 밝힐 기반을 다지는 등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와 혁신은 쉼 없이 이어진다.

30일에는 새만금 현장에서 투자 규모 1조원, 고용 창출 750명에 달하는 LS L&F 배터리 솔루션 준공식이 열려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0월 1일에는 친환경 고성능 2차 전지 핵심 소재 기술 혁신 허브 협의회 발대식이 데미 호텔에서 진행된다.



김철태 전북특별자치도 대변인이 지난 26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에서 이번주 도정 주요 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도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노력도 계속된다.

김관영 도지사와 노홍석 행정부지사,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25일부터 29일까지 사이에 35사단, 육군부사관학교, 제7공수특전여단, 공군38전투비행전대 등 군부대와 팔봉(익산)·지곡(군산)·산북119안전센터(군산) 등 소방기관을 직접 방문해 묵묵히 국토 방위와 안전을 책임지는 군 장병과 소방관의 노고를 위문하고 격려하고 있다.

10월 1일에는 신중양시장에서 ‘추석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보탠다.

도민과의 친밀한 소통과 생활 속 활력을 위한 행사들도 풍성하게 준비되었다.

29일에는 반려동물 동반 오수 의견 국민여가 캠프장이 오수면 의견로 3번지에서 개장한다.

30일 저녁에는 전주 노송광장에서 전주시가 주관하는 ‘전주하게 올림픽 유치 기원 범시민 문화축제’가 개최되어 도민들의 꿈을 응원한다.

10월 1일 오후에는 전주역에서 김관영 도지사의 1일 명예 전주역장 체험 행사가 귀성객 환영과 함께 전주하게

올림픽 홍보를 겸해 진행된다. 문화 예술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전북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도 빛을 발한다.

10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경기전 광장에서는 판소리, 가야금, 시조창 등 다양한 전통 예술이 어우러지는 ‘무형유산 한마당 축제’가 열리며, 개막식은 2일 저녁에 진행된다.

10월 3일 저녁에는 라한호텔에서 ‘세계 호남인의 날 기념식’이 열려 지역의 자부심을 고취한다.

체육 분야에서는 106회 전국 체전에 출전할 선수단을 격려하는 결단식이 10월 1일 오후 3시 체육회관 1층 야외 광장에서 열린다. 우리 전북은 49개 종목에 1,594명의 선수가 참가해 선전을 다잡는다.

또한 10월 1일에는 완주와 전주의 상생 협력 사업인 ‘민경강 물고기 철길 기공식’이 공사 현장에서 열려 지역 간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김철태 대변인은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전북자치도는 도민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열린 도정’을 운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한 주는 추석 명절을 맞아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불우 시설 및 국토 방위에 수고하는 군인과 소방 등을 위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도민의 행복을 향한 굳건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만호 기자



지난 26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정책브랜드 자문단 위촉식이 열렸다.

전북자치도, 정책브랜드 자문단 출범

카피·마케팅·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 22명 위촉

전북특별자치도가 정책 홍보의 전문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브랜드 자문단을 출범했다.

도는 지난 2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카피라이팅, 마케팅,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 22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분기별 1회 정기회의 등을 통해 도정 홍보 현안을 자문한다.

앞으로 1년간 활동하는 자문단은 △도정 핵심 정책 브랜드 전략 △주요 정책 네이밍 및 슬로건 발굴 △정책 홍보 전략 등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통해 정책이 단발성 홍보에 그치지 않고 일관된 브랜드 가치로 이어져 도민 생활 속에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다.

위촉된 위원들은 “전북의 미래 비전과 정책이 도민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위촉식에서 “22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의 통일성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브랜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탄소중립 도시 향한 힘찬 첫걸음

도·완주군, 에너지효율·탄소중립 첫 학습모임

에너지 절감 사례 공유·효율 개선 대책 모색 등

전북특별자치도와 완주군이 에너지 효율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여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과학 기술진흥센터 대회의실에서 ‘2025년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특화)’의 제1차 학습모임(LEEN: Local/Learning Energy Efficiency Network)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학습모임은 지난 5월 전국 12개 컨소시엄 가운데 2위의 우수한 평가로 선정된 이후 처음 진행된 공식 프로그램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전북테크노파크, 전문 진단기업, 완주산단 내 7개 참여기업 등이 함께해 △에너지 절감 사례 공유 △효율 개선 대책 발굴 △향후 절감 전략 논의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주요 프로그램에서는 에너지효율 개선 정책 및 제도 안내, 참여기업의 성과 발표, 효율개선 인증제도 소개, 현장 적용 가능한 절감 방안 등이 다채롭게 이어졌다. 기업 간의 실질적 협력과 생생한 경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입된 고효율 설비가 연간 약 113,300kWh, 평균 4.3%의 전력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지역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시장 확



대로 이어져 전북과 완주군이 탄소중립 선도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첫 학습모임은 기업 간 협력과 기술 교류의 소중한 출발점”이라며, “전북이 에너지 효율화와 2050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대표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모임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학습모임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완주군이 공동으로 마련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으로 운영한 첫 협력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 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분기별 세미나, 전문가 초청 교육 등을 정례화해 기업 간 기술 교류와 역량 강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도, 한우 후보씨수소 3두 선발

전북특별자치도 축산연구소가 한우 개량의 중심지로서 경쟁력을 다시 입증했다.

전북도는 지난 22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열린 2025년도 하반기 가족개량 협의회 실무위원회에서 한우 후보씨수소 3두가 최종 선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심사에는 전국 453두가 출품됐으며, 이 가운데 단 36두만이 선발되는 치열한 경쟁이었다. 특히 지자체 가운데서는 전북도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선발된 후보씨수소는 한우 평균 대비 체중이 최대 96kg, 근내지방도가 1.26점 높아 빠른 성장과 우수한 육질을 겸비했다. 이는 전북도가 추진 중인 ‘저탄소 한우 육성 정책’과도 맞닿아 단기 사육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가을철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

가을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도내 농민들에게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 재난연계에 따르면 지난해 농기계 사고는 979건으로, 41명이 목숨을 잃고 407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수확철인 10월에만 130건(13.3%)이 집중 발생했으며, 사고 원인으로는 ‘끼임’(360건), ‘교통사고’(317건), ‘전복·전도’(137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는 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집중 발생했으며,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게서 두드러졌다. 농업기술원은 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당부했다. △장기간 보관한 농기계는 반드시 사전 점검·정비 후 사용할 것 △회전형 밭작업을 피하고 회전부 근처 작업 시 각별히 주의할 것 △경운기 운반 시 적재 용량 준수 △야간 작업 시 야광반사판·등화장치 설치 △좁은 농로나 경사진 길에서는 서행 운전 △에초작업 시 보호 장비 착용 및 안전거리 확보 등이다.

/이만호 기자



“추석명절 건강하게 보내세요”

김관영 도지사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난 26일 전주시립요양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며 배식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북소방, 추석 연휴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총력 가동

상담대 2배 확대·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가동 의료공백 대응

전북 119 상담дук 운영...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손쉽게 이용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병·의원 및 약국 휴진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본격 운영을 시작한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 상담인력이 24시간 상주하며 구급대 병원선정, 의료기관 및 약국 안내, 응급상담, 응급처치 지도, 필요 시 의사 연결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 연휴(9월 14일~9월 18일) 동안 119 상담은 총 1,747건으로, 평상시(일평균 150건)보다 2.3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병·의원 및 약국 안내가 1,331건(7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응급처치 지도, 의료지도, 이송병원 선정도 다수 이뤄졌다.

소방본부는 이번 추석 연휴(10월 2일 18시~10월 10일 9시) 동안 상담전화

를 기존 4대에서 8대로 늘리고, 기간제 인력 5명을 추가 배치해 총 22명이 교대로 근무하는 비상체제를 가동한다.

또한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적극 활용해 권역응급의료센터(전북대·원광대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문강소병원 등과 연계해 환자 상태별 적정 의료기관을 신속히 안내한다. 심정지·중증의상 등 중대한 상황에서는 광역응급상황실과 협력해 공동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다수사상자 발생 시 구급대가 현장에서 환자 상태를 분류·전송하면 센터가 환자 분산과 이송병원 선정을 총괄하며, 권역심뇌혈관센터, 화상 전문병원 등과의 질환별 네트워크를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카카오톡 기반 ‘전북119상담톡’을 통해서도 의료기관 휴무 정보, 응

급처치 안내, 구급차 출동요청 등 실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청각·언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취약계층도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송상철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은 “연휴 기간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상, 기도 막힘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응급처치 방법을 미리 익히고, 해열제나 상처 소독약 등 상비약을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상담 시스템을 철저히 준비해 도민들의 의료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안전한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응급 상황 발생 시 119로 전화하거나 전북119상담톡을 활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